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영향요인 비교 분석

김진원¹⁾ · 모영민²⁾

요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Ⅱ(Korean Education Employment PanelⅡ: 이하 KEEPⅡ)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성화고 학생들과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3수준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진로성숙도의 전체 분산 중 학교수준 분산을 추정하고,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및 가정, 학교 특성으로 구분하여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진로성숙도는 학생 개인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 소속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심 변수를 투입한 위계적 분석 결과 두 학교 유형 모두에서 취업지도, 진로교육만족도 등 특정 학생수준 과정변수에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학교 간 일부 차이가 도출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직업계고의 진로교육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진로교육, 진로성숙도,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KEEPⅡ

I. 서론

급변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기 위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진로교육(career education)이란 직업교육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일, 학습, 생애 역할 등의 개인의 삶 전체를 인식하고 탐색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뜻한다(서정화, 정일환 외, 2008). 최근 진로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주목받는 개념으로 진로성숙도가 존재한다(송민경, 2011; 박미란, 이지연, 2010).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란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의적 태도, 인지적 능력, 결정을 실행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임언, 서유정, 최수정, 김인형, 2012). 고등학교 졸업 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업 세계로 향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진로성숙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의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은 고등학교에서 처음 시행되며(장석민, 2002: 80), 대표적인 고등학교로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

1)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2)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고)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가 기존 ‘전문계고등학교’에서 명칭만 변경된 것과 달리, 마이스터고는 중등직업교육의 위기 속에서 정부가 직업교육의 선도모델 육성 차원에서 특성화고 가운데 특정 요건을 갖춘 학교를 선정하여 특수목적화한 고등학교라는 점에서 다음의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재정 지원과 학교 운영 자율성의 차이이다. 교육부의 재정 지원은 주로 마이스터고에 집중되어 있다. 2011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4년간 학교 1개교 별 예산편성액을 보면, 학교별로 마이스터고는 총 66억, 특성화고는 총 33억을 지원받아 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에 비해 2배 더 많은 지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국회의원 정진후 보도자료, 2014: 3).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마이스터고는 교장공모제를 통한 학교장 권한·책임 보장, 우수 마이스터 교원(산학겸임교원) 및 과학고 수준 이상의 교사 정원 확보, 산업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전면 자율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성화고와 차별화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둘째, 입학 전형의 차이이다. 마이스터고는 2010년 6월 고등학교 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분류됨에 따라 특성화고보다 먼저 신입생을 모집하여 취업을 원하는 우수 인재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입학생의 출발점과 특성이 다르다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배상훈, 조성범, 장창성, 2014; 김민용, 조한진, 위선복, 김태훈, 2016; 김민용, 김태훈, 2017). 셋째, 졸업 이후 진로의 차이이다. 100% 선취업을 지향하는 마이스터고와 달리, 특성화고는 취업과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혼재되어 있다. 실제 마이스터고 취업률은 꾸준히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7년 기준 50.8%로(교육부, 2017),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비중 또한 32.8%임을 알 수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위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성숙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업계고 전체를 하나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맹희주(2014)와 배상훈 외(2014)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종합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것이라 가정하고, 그 중 진로교육과 관련된 학교 교육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교육 관련 학교요인을 탐구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 ‘투입-과정-산출’ 모형을 적용하여 개인 및 가정 특성, 학교 특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직업계고 진로교육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수준은 학교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둘째, ‘투입-과정-산출’ 모형에 근거하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정 특성, 학교 특성 요인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검토

1. 진로성숙도의 개념 및 특징

한 개인의 진로 결정과 선택은 일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성인이 되기 전 고교에 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고등학 생의 진로 선택 과정은 청소년기에서 적절히 수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Crites, 1978). 그 러나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많은 학생들의 경우, 진로에 관한 결정을 위한 정의적·인지적 발달 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신의 적성 및 진로와 상관없는 학과, 직업 및 진로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임언, 2008; 이지연, 2017).

발달론적 관점에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 및 진로 관련 이해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능력이 연령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에 주목하여, 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도로서 진로성숙도를 강조하고 있다(임언 외, 2012). Super(1957)는 진로성숙을 한 개인이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일련의 발달과정에 대해 도달한 수준으로 정의하였으며, 진로성숙 을 진로계획, 직업탐색, 의사결정, 직업 세계에 관한 지식,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식 등 다 섯 가지 차원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Super는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진로성숙의 과정을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로 분류하였으며, 각 단계가 고유한 특징과 과업을 갖는다고 보 았다. 이 중 탐색기(15~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학교에서의 경험이나 취미 활동 등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 및 적성을 탐색하게 되는데, Super는 이러한 청소년 기에서 직업 선택 과정이 명세화된다는 점에서 진로발달 단계 중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았다. 한편 Crites(1978)는 진로성숙도를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동일 연령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일관되고, 확실하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진로성숙의 하위영역을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정, 계획, 문제해결에 대한 진로선택능력과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경향성, 타협성으로 구분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진로성숙도를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 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의적 태도, 인지적 능력, 결정을 실행하는 정도’로 정의하여 2001년 진로 성숙도 검사를 개발하였으며, 11년간 교육정책의 변화와 청소년들의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2012년에 진로성숙도 검사를 개정하였다(임언 외, 2001; 임언 외, 2012). 기존에 수행된 다수의 진로성숙도 관련 이론 및 검사에서는 진로성숙의 하위 요소로서 태도 및 능력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성숙도 검사 도구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을 실행하는 정도를 일컫는 ‘행동’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진로성숙의 하위 요소로서 행 동은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진로에 관한 탐색활동이나 계획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CMI의 관여도(invovement)와 진로 계획(career planning) 등을 통해 측정되었다. 본 검사에서는 진로 성숙의 하위 요소인 행동을 진로와 관련된 전반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적극적인 진로탐색 및 계 획 행위로 바라보았다. 또한 진로성숙 중 태도요인을 계획성, 직업에 대한 태도, 독립성으로,

능력요인은 자기이해, 합리적 의사결정, 정보탐색, 희망직업에 관련된 지식으로, 행동요인을 진로탐색과 준비행동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언 외(2012)의 연구에 따라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를 계획성, 자기이해, 진로탐색 등의 하위 요소를 포함하는 능력, 태도, 행동의 범주로 이해하였다. 또한 진로성숙도를 고교에서 진행되는 진로교육활동의 효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2. 진로성숙도 영향요인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 및 가정 특성과 학교 특성으로 구분되어 연구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로 관련 교육활동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 및 가정 특성과 학교 특성을 교육활동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개인 혹은 기관에 주어진 조건을 의미하는 투입요인과 교육활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과정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 개인 및 가정 특성 요인

학교교육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개인 및 가정 특성의 투입요인에는 성별, 자아정체감, 교우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등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성별의 경우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여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남학생의 진로성숙도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이나(김기현, 유홍준, 오병돈, 2014; 김종성, 이병훈, 2010; 신선아, 전종설, 2015), 반대로 남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연구 역시 보고되고 있다(정윤경, 2005; 이정민, 정혜원, 2016). 다음으로 학생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정체감은 진로성숙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희수, 김옥희, 2007; 송수지, 김정민, 2018). 교우관계 또한 진로성숙도에 큰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미란, 이지연, 2010; 이정민, 정혜원, 2016). 교우관계가 원만한 청소년은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역량을 개발해나간다고 예측할 수 있다(임현정, 김난옥, 2011). 한편, 청소년은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관련 연구에서는 가정 특성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학생의 가정 특성 요인으로 부모와의 대화, 부모의 소득 등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신희경과 김우영(2005)은 부모와의 진로 관련 대화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또한 주요 변수로 통제되거나 관심변수로 상정되었다(노혁, 2006; 김경식, 이현철, 2012; 김기현 외, 2014). 노혁(2006)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제적 수준과 같은 직접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가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학생의 교육적 경험과 관련된 과정요인은 학생이 참여하는 진로교육활동, 동아리 활동, 교사와의 관계, 학교 및 진로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진로교육

활동은 직업교육을 포함하여 개인의 일, 학습, 생애적 역할 등 삶 전반을 탐색하는 것을 돕는 교육활동을 의미하며(서정화, 정일환 외, 2008), 교육활동의 유형에 따라 취업지도활동, 진로지도활동, 진로체험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취업지도활동은 선취업-후진학이라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취업 상담이나 취업처 연계, 채용 기업정보제공 등 직업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진로지도활동은 교내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짐과 동시에 다른 활동에 비해 교과교사나 진로진학 상담교사 등이 주도하여 지도하는 교육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진로지도활동에는 진로교과 수업, 진로심리 검사 등의 활동이 있으며, 이들 활동들이 학생의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경식, 이현철, 2012; 김효선, 양승호, 2012; 임현정, 김난옥, 2011). 마지막으로 진로체험활동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의³⁾되며, 구체적으로 직업인 멘토 특강, 현장 견학, 직업 실무 체험 등을 포함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김영식과 이기정(2016)의 연구에 따르면 현장직업 체험활동, 학과체험 활동 등의 진로체험활동 참여가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이러한 활동의 효과는 진로성숙도가 낮은 수준의 학생들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외(2014)의 연구에서도 전문직업인 초청 강연, 직업인 인터뷰 및 멘토링과 같은 활동뿐만 아니라, 현장직업 체험이나 학과체험 등의 진로체험활동 역시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와 취업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이러한 진로교육활동 외에도 동아리활동 또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임현정, 김난옥; 2011). 즉, 동아리 활동은 집단 및 여가 활동으로서의 특성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자신과 타인의 흥미, 관심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로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좋고 적극적일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결과도 다수 보고되어, 학생의 진로성숙 발달을 위해 교사의 노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문승태, 박몽진, 2003). 나아가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학교의 전반적인 만족도 또한 학생의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김경식, 이현철, 2012; 조명근, 구남옥, 2016).

나. 학교 특성 요인

청소년은 오랜 시간 학교라는 공간에서 지내며 성장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는 개인 및 가정 특성 요인뿐만 아니라 학교 특성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은 학생 개인과 관련된 요인만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제도적인 환경이나 진로교육 관련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학교 관련 투입요인에는 학교의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 학교소재지 등을 들 수 있다. 박미란과 이지연(2010)은 학교수준 변수가

3) 진로교육법 제2조

운데 학교의 평균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학교의 진로성숙도가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학교소재지 또한 학교의 진로성숙도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배상훈, 2012; 어윤경, 변정현, 2013).

한편 학교의 투입변수 외에도 학교풍토, 진로교육 관련 정책 등의 학교의 과정적 요인 또한 학교의 진로성숙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임현정(2016)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이 인식하는 교사의 열의나 교장의 교수학습지원 등이 활발할수록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의 자기 이해와 진로계획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미란과 이지연(2010)의 연구에서는 산업체 인사나 상급교육기관의 인사를 초청하는 학교의 진로 관련 활동에 따라 학교수준의 진로성숙도가 달라짐을 보고하고 있다.

3.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진로교육

특성화고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의미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특성화고는 1996년 2월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II’에서 고교단계 직업교육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처음 제안되었으며, 이를 통해 1998년 특성화고의 전신인 실업계 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 2010년에는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전문계 고등학교 중 종합고를 제외한 직업교육분야 특수목적고(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 일반 전문계고가 특성화고로 전환되었다(허영준, 김종우, 2013). 정부는 이러한 개혁을 통해 진학이 아닌 ‘취업’을 교육목적으로 하는 고교 유형을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학생선발, 교사 임용 방식 등에 있어서 일반고와 차별화하여 현장 중심, 실천 활동 중심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정책적 기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보다는 여전히 중학교 성적에 맞추어 고교에 진학하고, 졸업 후 대학진학을 염두에 두고 진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마이스터고의 도입으로 인해 고교직업교육의 서열화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다(맹희주, 2014).

한편 2008년 정부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졸업 후 우선 취업 및 기술명장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이스터고를 도입하였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마이스터고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2)’를 의미한다. 정부는 2008년, 2009년에 걸쳐 총 21개교를 마이스터고로 선정하여 산업체 현장의 ‘중견 기술자’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마이스터고는 2018년 기준 47개교가 지정되며 조기 취업을 결정한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마이스터고의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 규제 완화 및 교육과정 자율화, 취업 후 사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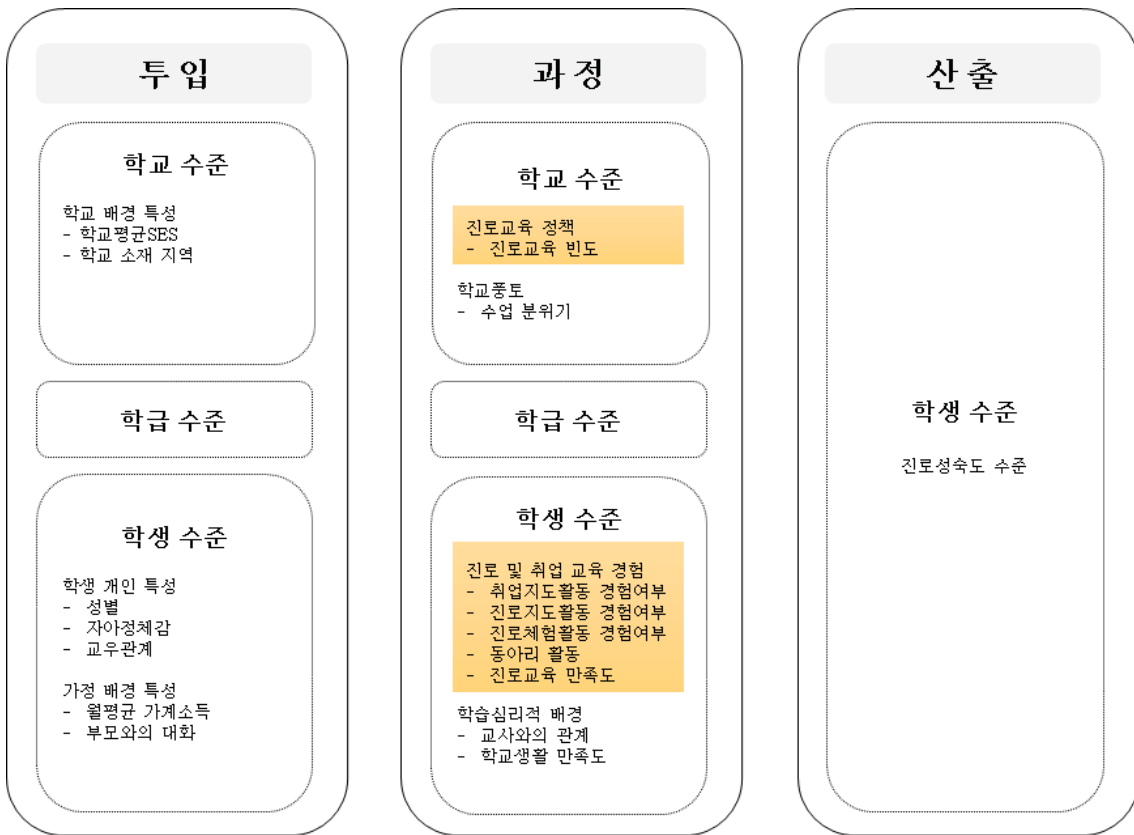
학 제도 운영, 특기병 근무 혜택 등 정책적으로 마이스터고를 지원하여 졸업생을 기술명장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마이스터고는 학생의 성적보다는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여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며,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개방형 교장 공모를 통해 교장 자격이 없는 산업체 인사도 학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특성화고와 차별화된다고(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일반계 고등학교가 대학진학에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에 비해 두 유형의 학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기관의 두 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두 학교 유형에서 진행되는 취업 및 진로 관련 교육 활동은 학교의 교육목적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학교 운영상의 특징이나 학교의 인적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 두 학교 유형 모두 직업전문교육기관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재학생의 인적 구성, 교장임용, 학생선발, 교육과정 등의 학교 운영상의 특성 역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배상훈, 2012). 또한 맹희주(2014)의 연구에 따르면 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취업이나 적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마이스터고에 진학한 것에 비해,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학진학, 성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두 학교 유형의 인적 구성과 학교 특성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활동이 면밀하게 수립되어야 함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유형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관련 역량 및 영향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다. 맹희주(2014)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독립성, 일에 대한 태도 등에서는 두 학교 유형의 학생들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자기를 이해하고, 직업 세계의 지식을 습득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훈 외(2014)의 연구에서는 마이스터고 집단의 초기 진로성숙 수준이 특성화고 집단의 그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에 있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는 천장효과(ceiling effect)로 인한 결과로 해석되었다. 이렇듯 진로 관련 역량뿐만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여러 영향요인들에 있어서도 두 학교 유형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훈과 조동현(2011)의 연구에 따르면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특히 교우관계에 있어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특성화고 학생들에 비해 긍정적인 부모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자기 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배상훈, 김효선, 김국군, 2011). 배상훈, 김환식, 김효선(2011)의 연구에서 또한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특성화고와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수업과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 자신들의 진로 개발 및 직업준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유사한 교육목적을 갖는 동시에 인적 구성과 학교 운영상의 특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학교 유형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및 취업지도활동과 진로성숙도에

대해 비교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이 같은 ‘투입-과정-산출’ 모형은 학생에게 주어진 교육여건을 뜻하는 투입요인과 학교교육활동으로 변화 가능한 과정요인을 분리함으로써 학교교육의 고유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구체적으로 종속변수는 진로성숙도이며, 독립변수는 학교교육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유한 변수인 투입변수와 학교교육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는 변수인 과정변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1] 진로성숙도 연구 모형

Ⅲ. 분석 대상 및 변수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집한 한국교육고용패널Ⅱ(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Ⅱ: KEEPⅡ)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KEEPⅡ 자료는 전국 고등학교 2학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고등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교육정책, 청년고용정책, 국가인적자본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학교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8년까지 13년간 체계적으로 수집될 예정이다. 본 자료는 2학년이 50명 미만인 학교를 제외하고 2,167개교를 선정한 후, ‘학교-학급-학생’을 기준으로 다단계 층화 무선표집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학교는 전국을 16개 지역으로 층화하여 추출되었으며, 학급은 동일 학교 내에서 4개, 학생은 동일학급 내에서 5명의 학생이 표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결국 처리(listwise) 이후 최종적으로 연구에 사용된 유효 표본 수는 특성화고 104개교, 2,411명이고 마이스터고 34개교, 975명이다.

2. 연구 변수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진로성숙도이다. 임언, 정윤경, 상경아(2001)는 진로성숙도의 하위 영역으로 태도, 능력, 이해를 제시하였다. 태도는 독립성, 일에 대한 태도, 계획성을 포함하며, 능력은 자기이해,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 능력, 직업에 대한 지식을 포괄하고, 행동은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을 뜻한다(임언 외, 2001: 36). 이러한 정의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학생의 진로에 관한 생각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제시한 14문항에 대해 진로성숙도 하위 영역인 태도, 능력, 이해로 요인분석⁴⁾을 실시한 결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측정에 적합한 9개 문항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진로성숙도 문항은 <표 1>과 같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제시된 9개 문항을 평균 내어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4) 임언, 정윤경, 상경아(2001)가 제시한 연구에 기반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 3 이상으로 상관이 높게 나타난 3, 4, 8번 문항과 중복해서 나타난 9번 문항을 제거하고, 직업계고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 5번을 제거하여 총 9개 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표 1〉 진로성숙도 문항

구분	번호	내용
태도	10	나는 나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11	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내 진로(대학 진학, 취업, 창업 등)에 대한 계획이 있다.
	12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대학 진학, 취업, 창업 등)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13	나는 진로(대학 진학, 취업, 창업 등)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
	14	나는 진로를 준비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능력	1	나는 새로운 직업이나 진로를 개척한 사람들의 사례를 알고 있다.
	2	나는 일과 직업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고 있다.
행동	6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전공 학과의 정보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다.
	7	나는 희망(관심) 직업의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탐색할 수 있다.

나. 독립변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학생수준과 학교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앞서 제시한 본 연구의 개념적 모형에 근거하여 각각 투입변수와 과정변수로 기술하였다. 변수명과 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변수의 구성 및 내용

변수		내용	
학생수준			
투입 변수	성별	여성=1, 남성=0	
	자아정체감 ⁵⁾	Likert 5점 척도, 6문항 평균	
	교우관계	Likert 5점 척도, 2문항 평균	
	월평균가계소득	연속형, 학생들의 월평균가계소득에 자연로그 취한 값	
	부모와의 대화	Likert 5점 척도, 5문항 평균	
과정 변수	취업지도활동 경험여부	있음=1, 없음=0 (하위 7문항의 총합) 취업 상담, 채용 기업 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도, 취업박람회 또는 채용설명회 참여, 취업·캠프, 졸업생 멘토링, 취업처 연계 경험	
	진로지도활동 경험여부	있음=1, 없음=0 (하위 5문항의 총합) ‘진로와 직업’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경험	
	진로체험활동 경험여부	있음=1, 없음=0 (하위 6문항의 총합) 직업인 멘토 특강, 현장 견학, 학과 체험, 현장 직업 체험, 직업 실무 체험, 진로 캠프 경험	
	동아리활동	있음=1, 없음=0	
	진로교육만족도	Likert 5점 척도, 학교 진로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교사와의 관계	Likert 5점 척도, 4문항 평균	
	학교생활만족도	Likert 5점 척도, 현재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학교수준		
	투입 변수	학교평균SES	연속형, 학생들의 월평균가계소득 평균값에 자연로그 취한 값 서울특별시=1, 부산광역시=2, 대구광역시=3, 인천광역시=4, 광주광역시=5, 대전광역시=6, 울산광역시=7, 경기도=8, 강원도=9, 충청북도=10, 충청남도=11, 전라북도=12, 전라남도=13, 경상북도=14, 경상남도=15, 제주도=16
		학교 소재 지역	
과정 변수	진로교육 관련 빈도	Likert 5점 척도, 9문항 평균	
	수업 분위기	Likert 5점 척도, 4문항 평균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교육고용패널Ⅱ 자료에서 학생은 학교와 학급에, 학급은 학교에 내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료의 위계를 반영하여 학생-학급-학교 3수준 다층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투입된 변수에 대해 기술통계 및 단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학교 간 차이를 반영하여 학생의 진로성숙도 분포를 분석한다. 셋째, 변수의 속성에 따라 위계적으로 학생-학급-학교의 3수준 다층분석을 실시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각각 투입요인과 과정요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해당 변수를 투입하여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 제시된 다섯 가지 모형은 투입된 변수들의 특성을 개인 및 학교, 투입 및 과정요인으로 구분하여 명세화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투입변수는 C(Context 혹은 Condition)로, 고교에서 진행되는 진로교육 활동에 해당하는 과정변수는 P(Process)로 표기하였다. 아래 첨자는 분석단위의 수준을 의미하며, 1=학생수준, 2=학급수준, 3=학교수준이다. 따라서 C_1 은 학생수준의 투입변수, C_3 는 학교수준의 투입변수를 의미하며, P_1 은 학생수준의 과정변수, P_3 는 학교수준의 과정변수를 의미한다.

모형1. 기초모형(무선효과 분산분석 모형)

모형2. $y = f(C_1) + \text{오차}$

모형3. $y = f(C_1, C_3) + \text{오차}$

모형4. $y = f(C_1, C_3, P_1) + \text{오차}$

모형5. $y = f(C_1, C_3, P_1, P_3) + \text{오차}$

IV. 분석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가. 기술통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의 <표 3>, <표 4>와 같다. 특성화고 자료에서 유효 표본 학생수는 2,411명, 학교수는 104개교였으며, 진로성숙도의 평균은 3.42,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의 빈도는 3.98이었다. 반면, 마이스터고 자료에서 유효 표본 학생수는 975명이고 학교수는 34개교였으며, 진로성숙도의 평균은 3.83,

5) 해당 문항은 고등학생이 자신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반영한 문항으로 다른 연구(강현구, 송지나, 정수지, 이순형, 2015)에서도 사용한 바 있으며, 본 연구 또한 ‘자아정체감’으로 명명하였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의 빈도는 4.05였다.

〈표 3〉 특성화고 관련 변수의 기술통계량

구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문항수	신뢰도	
학생수준								
종속변수	진로성숙도	3.42	0.64	1.00	5.00	9	0.874	
독립변수	성별(여자)	0.45	0.50	0.00	1.00	1		
	자아정체감	3.54	0.71	1.00	5.00	6	0.847	
	교우관계	3.78	0.75	1.00	5.00	2	0.743	
	월평균가계소득	5.81	0.69	0.00	8.85	1		
	부모와의 대화	2.83	0.97	1.00	5.00	5	0.878	
	취업지도활동 경험여부	2.50	2.04	0.00	7.00	7		
	진로지도활동 경험여부	3.04	1.42	0.00	5.00	5		
	진로체험활동 경험여부	2.52	1.87	0.00	6.00	6		
	동아리활동	0.61	0.49	0.00	1.00	1		
	진로교육만족도	3.37	0.89	1.00	5.00	1		
	교사와의 관계	3.77	0.75	1.00	5.00	4	0.897	
	학교생활만족도	3.65	0.88	1.00	5.00	1		
	학교수준							
		학교평균SES	5.81	0.21	4.97	6.31	1	
	학교 소재 지역	7.48	4.69	1.00	16.00	1		
	진로교육 빈도	3.98	0.55	2.44	5.00	9		
	수업 분위기	3.10	0.30	2.41	4.01	4	0.750	

주: 특성화고 학생수 N=2,411, 학교수 N=104

〈표 4〉 마이스터고 관련 변수의 기술통계량

구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문항수	신뢰도	
학생수준								
종속변수	진로성숙도	3.83	0.57	1.44	5.00	9	0.853	
독립변수	성별(여자)	0.16	0.37	0.00	1.00	1		
	자아정체감	3.88	0.65	1.20	5.00	6	0.839	
	교우관계	3.95	0.68	1.50	5.00	2	0.685	
	월평균가계소득	5.97	0.52	3.40	8.52	1		
	부모와의 대화	2.76	0.81	1.00	5.00	5	0.879	
	취업지도활동 경험여부	4.30	1.72	0.00	7.00	7		
	진로지도활동 경험여부	3.42	1.19	0.00	5.00	5		
	진로체험활동 경험여부	3.76	1.61	0.00	6.00	6		
	동아리활동	0.86	0.35	0.00	1.00	1		
	진로교육만족도	3.64	0.91	1.00	5.00	1		
	교사와의 관계	4.08	0.70	1.00	5.00	4	0.894	
	학교생활만족도	3.85	0.88	1.00	5.00	1		
	학교수준							
		학교평균SES	5.97	0.14	5.71	6.23	1	
	학교 소재 지역	8.29	4.43	1.00	15.00	1		
	진로교육 빈도	4.05	0.55	2.67	5.00	9		
	수업 분위기	3.73	0.21	3.20	4.23	4	0.760	

주: 마이스터고 학생수 N=975, 학교수 N=34

나. 상관분석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에 앞서, 종속변수인 진로성숙도와 각 독립변수와의 단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상관계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수준			
성별(여자)	0.00	성별(여자)	-0.04
자아정체감	0.53 ***	자아정체감	0.57***
교우관계	0.27 ***	교우관계	0.29***
월평균가계소득 (자연로그)	0.07 ***	월평균가계소득 (자연로그)	0.09***
부모와의 대화	0.25 ***	부모와의 대화	0.25***
취업지도활동 경험여부	0.24 ***	취업지도활동 경험여부	0.22***
진로지도활동 경험여부	0.22 ***	진로지도활동 경험여부	0.18***
진로체험활동 경험여부	0.18 ***	진로체험활동 경험여부	0.18***
동아리활동	0.10 ***	동아리활동	0.13***
진로교육만족도	0.27 ***	진로교육만족도	0.28***
교사와의 관계	0.32 ***	교사와의 관계	0.35***
학교생활만족도	0.28 ***	학교생활만족도	0.25***
학교수준			
학교평균SES (자연로그)	0.38 ***	학교평균SES (자연로그)	0.03
학교 소재 지역	-0.04 ***	학교 소재 지역	-0.23 ***
진로교육 빈도	0.18 ***	진로교육 빈도	-0.04
수업 분위기	0.55 ***	수업 분위기	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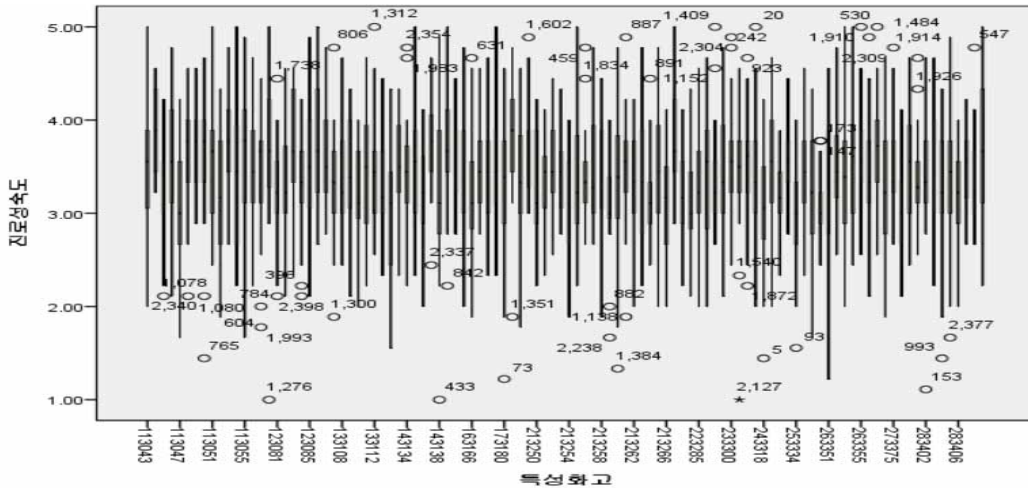
주 : *** 1%, ** 5%, * 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표 5>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학생수준의 투입변수인 자아정체감은 진로성숙도와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나 부모와의 대화 정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생이 참여한 교육적 활동 역시 진로성숙 수준과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성숙과 관련 있는 학교수준의 변수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성화고에서는 모든 학교수준 변수가 상관을 가지는 데 반하여, 마이스터고에서 학교평균SES와 진로교육 빈도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진로성숙도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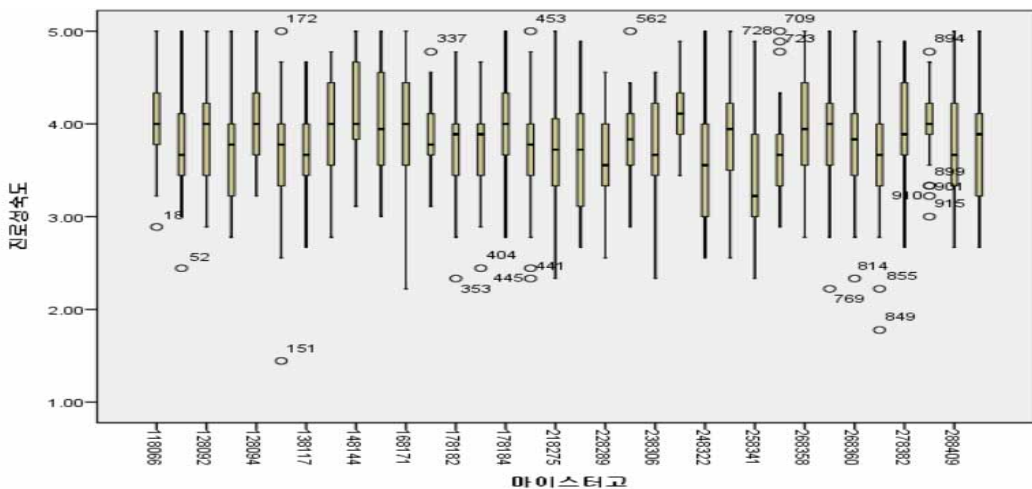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성숙도는 진로성숙 하위영역인 태도, 능력, 행동에 대한 9문항(Likert 5점 척도) 합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먼저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수준이 학교

별로 어떻게 다른지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진로성숙도 분포를 특성화 고교별로 구하여 상자도표로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기술통계 결과, 학교별 진로성숙도 수준의 평균은 3.42이고 표준편차는 0.20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별 진로성숙도의 변산 정도가 매우 다양함을 의미하며, 학교 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층분석을 이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성화고에서 진로성숙도의 학교별 평균이 가장 낮은 학교는 2.96으로 나타났고, 학교별 평균이 가장 높은 학교는 3.87로 밝혀졌다.



[그림 2] 특성화고 진로성숙도 분포

다음으로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분포를 학교별로 어떻게 다른지 마이스터고교별로 구하여 상자도표로 제시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기술통계 결과, 학교별 진로성숙도 수준의 평균은 3.83이며, 표준편차는 0.16으로 밝혀졌다. 이 또한 학교별 진로성숙도의 변산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마이스터고에서 진로성숙도의 학교별 평균이 가장 낮은 학교는 3.45이며, 학교별 평균이 가장 높은 학교는 4.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마이스터고 진로성숙도 분포

3. 진로성숙도의 분석수준별 분포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는 학교와 동일 학교 내에서도 학급에 따라 다르다고 가정하였다. 진로성숙도 점수의 변산은 개인수준 분산, 학급수준 분산, 학교수준 분산의 총합이라는 구조를 갖는다. 개인수준 분산이란 학생의 학급 소속 및 학교 소속의 효과를 배제한 이후 개인의 심리적 특성, 교우관계, 부모와의 대화 등 학생 개인 수준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고유한 개인차 분산이다. 학급수준 분산은 다른 모든 변수의 효과를 배제하고 난 이후 학생이 소속된 학급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진로성숙도의 차이 정보를 뜻한다. 학교수준 분산은 고유한 학교 간 차이로 나타나는 진로성숙도의 분산을 의미한다. 3수준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분석수준별 분포를 구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분석수준별 분포

구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분산	비율(%)	분산	비율(%)
학교수준	0.01900	4.63	0.01391	4.32
학급수준	0.01828	4.45	0.01217	3.78
학생수준	0.37312	90.91	0.29560	91.89
총 분산	0.41040	100	0.32168	100

위 <표 6>은 학생들의 진로성숙 점수의 분산이 대부분 개인차 요인으로 발생함을 보여준다. 위 결과에 따라 학생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가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반영하는 통계량인 급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ICC)를 구하면, 세 가지 종류의 ICC 산출이 가능하다. 첫째, 학생 진로성숙도의 전체 분산에서 몇 %가 학급 소속에 영향을 받는지 보여주는 학급수준 집단 내 상관은 특성화고 0.045, 마이스터고 0.038이다. 둘째,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소속학교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지 보여주는 학교수준 집단 내 상관은 특성화고는 0.046, 마이스터고는 0.043이다. 셋째,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학급과 학교를 포함한 소속 집단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지 보여주는 집단수준 ICC는 특성화고 0.091, 마이스터고 0.081로 나타났다. 집단 ICC의 경우, 일종의 맥락효과(Contextual effect)로서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분산이 학급과 학교 소속에 따라 특성화고의 경우 9.1%, 마이스터고의 경우 8.1%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 ICC 산출은 상관계수로 도출한 결과이며, ICC 값에 대한 절대적 해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에 대한 학교수준의 분산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며,⁶⁾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진로성숙도 수준은 학교 간 차이에 의해 각각 4.6%, 4.3% 발생하여, 실제 학교 간 차이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6)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교효과 연구에서는 ICC가 0.05 이상이면 학업성취도가 학교 간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ICC에 대한 해석은 변수에 대한 맥락을 반영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학교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전체 분산 중 학교수준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5%로 나타나고 있다(김효선, 양승호, 2012; 박미란, 이지연, 2010; 임언, 2006).

4. 진로성숙도의 위계적 분석

가. 특성화고 학생 진로성숙도의 위계적 분석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대해 위계적으로 변수를 투입하여 3수준 다층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변수명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초모형)		(학생수준 투입변인)		(모형2+학교수준 투입변인)		(모형3+학생수준과 모형4+학교수준과 정변인)		(모형4+학교수준과 정변인)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학생수준										
진로성숙도	3.4164***	(0.0194)	3.4171***	(0.0149)	3.4173***	(0.0140)	3.4180***	0.0122	3.4181***	0.0113
성별(여자)			-0.0145	(0.0254)	-0.0134	(0.0249)	0.0079	0.0237	-0.0067	0.0235
자아정체감			0.4157***	(0.0164)	0.4161***	(0.0164)	0.3690***	0.0161	0.3694***	0.0160
교우관계			0.0817***	(0.0158)	0.0796***	(0.0158)	0.0470**	0.0153	0.0452**	0.0153
월평균가계소득			0.0381**	(0.0159)	0.0267	(0.0163)	0.0339**	0.0156	0.0330**	0.0156
부모와의 대화			0.0682***	(0.0117)	0.0677***	(0.0117)	0.0406**	0.0113	0.0421***	0.0112
취업지도경험여부							0.0358***	0.0062	0.0329***	0.0062
진로교육경험여부							0.0386***	0.0085	0.0385***	0.0084
진로체험경험여부							0.0015	0.0069	0.0024	0.0068
동아리활동							0.0169	0.022	0.0101	0.0221
진로교육만족도							0.0590***	0.0132	0.0586***	0.0132
교사와의 관계							0.0779***	0.0167	0.0752***	0.0167
학교생활만족도							0.0442**	0.0139	0.0417**	0.0139
학교수준										
학교평균SES					0.2203**	0.0718	0.2134**	0.0633	0.1841**	0.0601
학교 소재 지역					-0.0042	0.0031	-0.0033	0.0027	-0.0018	0.0026
진로교육 빈도									-0.0053	0.0221
수업 분위기									0.1709***	0.0409
분산										
학교수준	0.01900		0.00940		0.00670		0.00252		0.00050	
학급수준	0.01828		0.00981		0.00993		0.01139		0.01099	
학생수준	0.37312		0.26686		0.26676		0.24224		0.24234	
전체	0.41040		0.28607		0.28339		0.25615		0.25383	
학교 집단내상관(ICC)	0.04630		0.03286		0.02364		0.00984		0.00197	
학급 집단내상관(ICC)	0.04454		0.03429		0.03504		0.04447		0.04330	
학교+학급 집단내상관(ICC)	0.09084		0.06715		0.05868		0.05430		0.04527	
편차량	4639.560285(4)		3792.717585(9)		3779.666895(11)		3543.710132(18)		3526.945798(20)	
누적설명분산 R ² (추가된 설명분산)										
학교수준			0.50526		0.64737		0.86737		0.97368	
학급수준			0.46335		0.45678		0.37692		0.39880	
학생수준			0.28479		0.28506		0.35077		0.35050	
전체			0.30295		0.30948		0.37585		0.38151	

주 : *** 1%, ** 5%, * 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특성화고 학생수 N=2,411, 학교수 N=104

위 <표 7>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성숙 수준과 관련된 요인들을 위계적인 절차를 통해 다층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기초모형인 모형1에서 시작하여 모형5에 이르기까지 학생수준 투입변인, 학교수준 투입변인, 학생수준 과정변인, 학교수준 과정변인을 순차적으로 추가한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위계에 따라 3수준 다층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학교·학급·학생수준의 분산정보를 산출하였으며, 학생의 집단 소속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집단 내 상관계수(ICC)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모형에 따른 분산의 설명력(R^2)을 제시하였다.

<표 7>의 결과를 단계별로 제시해보면, 먼저 모형1의 경우, 어떤 변수도 투입하지 않은 기초모형으로서 분석단위에 따른 기본적인 변산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모형2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주어진 배경변수가 투입된 모형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무관한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과 마찬가지로 모형2에 투입된 배경변수인 자아정체감, 교우관계, 부모와의 대화는 모두 유의수준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SES)를 보여주는 월평균가계소득은 유의수준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모형에서 투입된 다른 배경변수에 비해 낮은 유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의 경우 진로성숙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진로성숙도 수준의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것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형3은 모형2에 학교수준 투입변수를 추가한 결과이다. 학교수준 투입변수 역시 배경변수로서 학교 교육과정 및 활동을 통해 변화시킬 수 없는 변수에 해당한다.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학교평균SES는 학교 평균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p<.05$)을 미친 반면, 학교소재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형2에서는 월평균가계소득이 유의수준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수준 배경변수를 투입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가계소득의 회귀계수 절대값은 0.038에서 0.027로 변화되었다.

모형4는 모형3에 진로성숙도를 설명하는 학생수준 과정변수인 취업지도활동, 진로지도활동 및 진로체험활동 경험여부, 동아리활동, 진로교육만족도,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만족도를 투입한 결과이다. 모형4에서는 모형3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던 월평균가계소득이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에서 투입된 학생수준 과정변수 중에서는 취업지도활동과 진로지도활동의 경험여부, 진로교육만족도,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와 학교생활만족도가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채용 기업 정보 제공, 취업처 연계 등으로 이루어진 취업지도활동과 ‘진로와 직업’ 수업을 통한 진로지도, 진로상담 등의 진로지도활동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직업인 멘토 특강, 현장직업 체험과 같은 활동으로 이루어진 진로체험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과정을 통한 진로지도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활동 중심으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직접적인 직업 세계와 연관된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활동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을 개연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모형5는 모형4에 학교수준 과정변인인 진로교육 빈도와 수업 분위기를 투입한 결과에 해당한다. 해당 모형에서 학생의 투입변수, 학교의 투입변수, 학생의 과정변수를 모두 통제한 결과, 진로교육 빈도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수업 분위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 ($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수들의 경우 모형4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나. 마이스터고 학생 진로성숙도의 위계적 분석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대해 위계적으로 변수를 투입하여 3수준 다층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 절차 및 세부 내용과 구조는 앞서 특성화고 자료를 분석한 <표 7>과 동일하며, 같은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모형2에 투입된 학생수준의 투입변수(자아정체감, 교우관계, 월평균가계소득, 부모와의 대화)의 효과는 특성화고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학교수준의 투입변수(학교평균SES, 학교 소재 지역)를 투입한 모형3의 경우에는 학교 소재 지역의 경우 특성화고와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학교평균SES의 경우는 특성화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데 반하여, 마이스터고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및 학교수준의 과정변수를 투입한 모형4와 모형5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마이스터고에서는 취업지도활동, 진로교육만족도, 교사와의 관계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가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기존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문승태, 박몽진, 2003). 그러나 특이한 점은 마이스터고에서 특성화고와는 다르게 진로교육활동 중 취업지도활동 여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마이스터고가 선취업-후진학을 교육 목표로 운영되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마이스터고에 진학한 학생의 경우, 취업지도는 체계적으로 받고 있지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에 있어서는 충분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단발적으로 운영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의 결과(최동규 외, 2017: 35)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진로교육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두 학교 유형 모두에서 교우관계는 유의한 데 반하여, 동아리 활동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계고에서 진행되는 동아리 활동이 학생의 진로 결정이나 개발과는 큰 연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모형5에서는 학생의 투입변수, 학교의 투입변수, 학생의 과정변수를 모두 통제한 결과, 진로교육 빈도와 수업 분위기 변수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수준의 과정변수보다 학생수준의 과정변수가 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위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며, 동시에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수준의 과정변수

로 더 적합한 변수의 탐색이 요청됨을 알 수 있다.

〈표 8〉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변수명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기초모형)		(학생수준 투입변인)		(모형2+학교수준 투입변인)		(모형3+학생수준과 모형4+학교수준과 정변인)		(모형4+학교수준과 정변인)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학생수준										
진로성숙도	3.8288***	(0.0281)	3.8292***	0.0185	3.8293***	(0.0183)	3.8293***	(0.0172)	3.8293***	(0.0172)
성별(여자)			0.0012	0.0436	0.0027	(0.0415)	-0.0027	(0.0418)	-0.0011	(0.0421)
자아정체감			0.4401***	0.0244	0.4400***	(0.0311)	0.3952***	(0.0246)	0.3953***	(0.0246)
교우관계			0.0977***	0.0231	0.0975***	(0.0223)	0.0690***	(0.0226)	0.0688***	(0.0226)
월평균가계소득			0.0489*	0.0281	0.0456**	(0.0231)	0.0487*	(0.0277)	0.0486*	(0.0277)
부모와의 대화			0.0682**	0.0190	0.0686**	(0.0189)	0.0433**	(0.0185)	0.0434**	(0.0186)
취업지도경험여부							0.0256**	(0.0099)	0.0259**	(0.0099)
진로교육경험여부							0.0219	(0.0133)	0.0216	(0.0134)
진로체험경험여부							0.0087	(0.0105)	0.0088	(0.0107)
동아리활동							0.0344	(0.0425)	0.0349	(0.0425)
진로교육만족도							0.0682***	(0.0181)	0.0686***	(0.0182)
교사와의 관계							0.1001***	(0.0254)	0.1000***	(0.0255)
학교생활만족도							-0.0193	(0.0198)	-0.0192	(0.0199)
학교수준										
학교평균SES					0.0759	(0.1219)	0.1724	(0.1317)	0.1766	(0.1326)
학교 소재 지역					-0.0022	(0.0043)	-0.0032	(0.0040)	-0.0032	(0.0043)
진로교육 빈도									-0.0080	(0.0337)
수업 분위기									-0.0175	(0.0868)
분산										
학교수준	0.01391		0.00454		0.00435		0.00349		0.00346	
학급수준	0.01217		0.00001		0.00000		0.00002		0.00001	
학생수준	0.29560		0.20397		0.20397		0.18894		0.18894	
전체	0.32168		0.20852		0.20832		0.19245		0.19241	
학교 집단내상관(ICC)	0.043242		0.021772		0.020881		0.018135		0.017982	
학급 집단내상관(ICC)	0.037833		0.000048		0.000000		0.000104		0.000052	
학교+학급 집단내상관(ICC)	0.081074		0.021820		0.020881		0.018239		0.018034	
편차량(Deviance)	1639.135206(4)		1233.690348(9)		1233.101253(11)		1156.799077(18)		1156.708839(20)	
누적설명분산 R ² (추가된 설명분산)										
학교수준			0.673616		0.687275		0.749101		0.751258	
학급수준			0.999178		1.000000		0.998357		0.999178	
학생수준			0.309980		0.309980		0.360825		0.360825	
전체			0.351778		0.352400		0.401735		0.401859	

주 : *** 1%, ** 5%, *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마이스터고 학생수 N=975, 학교수 N=34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고교 내 진로교육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탐구하여, 학생들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 II(KEEP II) 자료를 활용하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수준을 파악한 후, 진로성숙도 관련 요인을 학생수준 변수와 학교수준 변수로 구분하고, ‘투입-과정-산출’ 모형을 적용하여 3수준 다층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분포에서 학교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기초모형 분석 결과, 학교 간 분산 수준은 전체 분산에서 특성화고가 4.6%, 마이스터고는 4.3%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학교 간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 일부 공통점과 차이점이 도출되었다. 개인수준 투입변수에서 성별은 두 학교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 교우관계, SES, 부모와의 대화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과정변수에서 특성화고는 취업지도활동, 진로지도활동, 진로교육만족도,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만족도가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쳤으며, 마이스터고는 취업지도활동, 진로교육만족도, 교사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학교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취업지도활동, 진로교육만족도, 교사와의 관계였다. 학교수준 투입변수는 특성화고에서의 학교평균SES만 유의하였다. 학교수준 과정변수에서는 특성화고의 수업분위기만 유의하였고, 진로교육의 빈도는 두 학교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분포는 학교 소속에 따라 실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학생의 진로성숙도는 학교의 진로교육활동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학교 차원의 노력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교 진로교육활동에서 특성화고는 취업지도와 진로지도활동이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마이스터고는 취업지도활동만이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선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계고에서 취업지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진로지도 및 진로체험활동이 실제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이나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마이스터고 학생의 경우, 취업지도 이외에는 진로지도 및 진로체험활동 모두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온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배상훈 외(2014)가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경우 초기 진로성숙 수준이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최

동규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 마이스터고 학생의 경우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는 마이스터고가 중등 직업교육의 선도적인 모델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취업지도활동뿐만 아니라 학생의 진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가 대학 진학과 취업으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로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궁극적으로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 개별화된 진로체험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존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특징적인 결과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모두 학교수준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의 빈도는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학생들이 인지하는 진로교육만족도는 진로성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직업계고에서 진행되는 진로교육활동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방향보다는 실질적으로 진로교육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적성, 흥미 등에 기반한 진로교육활동이 안착될 때 진로성숙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마이스터고와 달리 특성화고에서 학교수준 투입변수인 학교평균SES와 학교수준 과정변수인 수업 분위기가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직업계고 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학교 간 양극화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학교평균SES 변수가 특성화고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때,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 특성화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학교수업 분위기와 같은 학교의 문화 및 풍토와 같은 과정적인 측면들도 함께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과 같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특성화고의 문화 및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직업계고 지원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성화고의 문화와 풍토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직업계고 학생 비중이 2022년까지 약 3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교육부, 2018) 직업계고의 질적 향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맥락을 반영하여 두 학교 유형에서 진행되는 진로교육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성숙도는 학교 소속에 따라 상이하고 진로교육활동의 영향이 학교 유형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다층적 성격을 가지며, 각각의 영향요인을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존재한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활동이 직업계고 고등학생의 교육적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로성숙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특성화고는 공업계열에서부터 농업계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열이 존재하므로 이를 세분화하여 연구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현구, 송지나, 정수지, 이순형(2015). 초기 청소년기 진로결정수준과 대학 및 전공 만족도가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미치는 영향.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8(3), 57-88.
- 교육과학기술부(2011). 직업교육 선도모델 「마이스터고」 4개교 추가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3.18).
- 교육부(2016).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4.26).
- _____ (2017). 직업계고졸업자 취업률 17년 만에 50% 넘어. 교육부 보도자료(11.20).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통계 주요지표 포켓북**. (통계자료 SM 2017-01). 진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국회의원 정진후 보도자료(2014). 교육부, 특성화고 대비 마이스터고 3배 이상 차별 추가지원. 국회의원 정진후 보도자료(9.15).
- 김경식, 이현철(2012).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학교진로교육의 효과-한국교육고용패널(KEEP)과 한국청소년패널(KYPS) 분석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60(4), 1079-1103.
- 김기현, 유흥준, 오병돈(2014). 진로체험의 효과: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직업교육연구**, 33(3), 19-36.
- 김민용, 김태훈(2017). 공업계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의 인성 수준 조사 분석. **직업교육연구**, 36(1), 23-46.
- 김민용, 조한진, 위선복, 김태훈(2016). 공업계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의 암묵적 이론 성향 차이 분석. **직업교육연구**, 35(2), 59-87.
- 김영식, 이기정(2016). 진로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교육과학연구**, 47(4), 125-143.
- 김종성, 이병훈(2010).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및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3), 33-59.
- 김효선, 양승호(2012). 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 및 학생특성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3수준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직업교육연구**, 31(1), 57-74.
- 김희수, 김옥희(2007). **진로성숙의 변인연구**, **진로교육연구**, 20, 57-68.
- 노혁(2006).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성숙수준 연구. **청소년학연구**, 13(6), 305-327.
- 문승태, 박몽진(2003). 공업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및 학교환경 변인에 관한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5(4), 177-192.
- 맹희주(2014).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업가치관과 진로성숙도 비교 분석. **교과교육학연구**, 18(3), 579-599.
- 박미란, 이지연(2010). 진로성숙에 미치는 개인적 변인과 학교교육의 효과 검증. **인간이해**, 31(1), 65-88.
- 배상훈, 김효선, 김국군(2011). 마이스터고 학생의 가정배경 및 정서적·학습심리적 특징 분석. **열린교육연구**, 19, 149-175.

- 배상훈, 김환식, 김효선(2011). 마이스터고 학생의 학교소속감, 학교만족도, 학교수업 및 진로지도에 대한 인식 : 특성화고 및 일반고 학생과 비교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155-180.
- 배상훈(2012). 학교유형이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30, 525-548.
- 배상훈, 조성범, 장창성(2014). 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성장에 대한 마이스터고 효과: 2시점 유사종단 연구. **직업교육연구**, 33(5), 107-132.
- 서정화, 정일환 외(2008). **선진한국의 교육비전**. 서울: 교육과학사.
- 송민경(2011). 청소년기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4), 329-347.
- 송수지, 김정민(2018). 중학생의 청소년활동 참여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4), 169-184.
- 신선아, 전종설(2015). 청소년의 애착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7(3), 111-136.
- 신희경, 김우영(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동기에 관한 연구: 개인 가정학교의 역할.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논문집** (pp. 307-336).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어윤경, 변정현(2013). 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따른 학업성취도, 학교폭력, 진로성숙도의 변화: 일반계 고교와 특성화 고교의 비교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6), 3477-3498.
- 이명훈, 조동헌(2011).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 변인. **직업교육연구**, 30(1), 291-311.
- 이정민, 정혜원(2016). 고등학생 진로성숙도 발달양상의 잠재계층 분류와 영향요인 검증. **청소년학연구**, 23(11), 29-53.
- 이지연(2017).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청소년 진로교육의 방향.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017(5), 65-96.
- 임언, 정윤경, 상경아(2001). **진로성숙도 검사 개발 보고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2006). 다층모형(HLM)에 기초한 학교진로교육 효과 분석.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 639-661).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2008). **역량중심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위한 탐색**.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 서유정, 최수정, 김인형(2012). **진로심리검사 개정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현정, 김난옥(2011). 학교활동 경험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2(3), 261-281.
- 임현정(2016).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개인, 가정, 학교의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 34(4), 265-285.
- 장석민(2002). 실업계 고교의 근본 문제점과 개혁의 방향. **교육개발**, 11-12, 72-82.
- 전국 마이스터고 교장협의회(2017). **2017 신입생 모집**. 전국 마이스터고 교장협의회.
- 조명근, 구남욱(2016). 학교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 1-23.
- 정윤경(2005).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변인: 가정, 개인, 학교 특성을 중심으로.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논문집** (pp. 259-305).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1). **기술강국 Korea, 마이스터고의 추진성과와 발전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허영준, 김종우(2013). **정부부처, 지자체, 산업체 연계 특성화고 지원 확대 방안 연구**. 세종: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Crites, J. O.(1978).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2nd ed.)*.
Monterey, CA: CTB/McGraw-Hill.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Abstract ❖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areer Maturity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and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Kim Jin-Won, Mo Young-Min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career maturity of the specialization high school students and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using Korean Education Employment Panel II (KEEP II) data. To achieve this goal, we applied the 3-level multilevel model to estimate the school level variance among the overall variances on career maturity, and compared and analyzed factors that have an influence on the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the career maturity of the students had the greatest effect on individual differences while there ar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chool affiliation. Second, the hierarchical analysis with interest variables showed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cess variables at the specific student level in both types of schools, such as employment guidance and career education satisfaction, and some differences were derived between the two schools.

Based on the results, We tried to clarify the problems of career education in specialization and meister high school and provided a way to improve the effective career education policy.

Key words: career education, career maturity, specialized high school, meister high school, KEEP II